진짜복 알고 살자

(눅11:27-36)

27.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밴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29.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30.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31.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32.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33.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34.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35.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진짜 복 알고 살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석지영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마흔이 안 된 여성분인데, 6세 때 가족이 이민을 가서 지금은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의 종신교수로 봉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2011년부터 한국에도 많이 알려지고, 또 그분의 책들이 번역이 되어 출판되기도 하고, 심지어 KBS TV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방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았어요, 도대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하고.
대단해요, 하버드 대학교의 종신교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더구나 아시아의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로스쿨의 종신교수가 되었는데, 교수가 될 때도 로스쿨 교수 100명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엄친딸의 종결자라고 합니다.
게다가 미모도 있고 집안도 좋고, 빠진 게 없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어머니의 많은 영향을 받았고, 아버지도 의사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 받은 집안이지요.
아버지는 의사, 어머니는 딸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뭐 어머니가 애쓴다고 딸들이 다 그렇게 됩니까?
어머니도 젊고 예쁘세요, 딸이 39세 되었는데도 어머니가 젊더라고요.
그런데 이 딸이 예일대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옥스퍼드대학에서 비교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따고, 건너와서는 하버드대 로스쿨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뉴욕에서 검사로 일하다가 조교수로 와서 조교수가 된 지 4년 만에 종신교수가 되었습니다.
보통 빨라야 조교수 되고 6, 7년이 지나야 종신교수가 된다고 하는데, 남편도 유대계 미국인인데 마찬가지로 종신교수에요, 하버드대 로스쿨의.
부럽지요?
부러워요, 이 집안이 부럽고 석지영교수의 탁월함이 부럽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복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당신을 밴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마땅히 나올만한 말이지요, 자식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같은 자녀를 둔다면, 석지영교수 같은 딸을 둔 그 엄마가 부러운데, 예수님과 같은 아들을 둔 그 엄마가 부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혈육으로 낳아서 기른 엄마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낳아서 기른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이 말씀은 혈육에 근거된 것 중에 복의 이유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체이십니다.
복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실 때 마리아가 잉태하고 마리아가 그 아기를 길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밴 태와 태어난 아기를 길러낸 그 엄마가 복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 의미대로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바른 이해가 되느냐?
우리가 이 몸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없다면 이 지구 안에서의 삶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의 삶의 경계 안에서는 복이다, 아니다, 라고 말할 이유나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 지구 안의 폐쇄된 상태에서는 복이랄 게 없다는 거예요.
삼성그룹의 오너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복이라고 말할 게 없다는 얘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아니라면, 그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도 복이라고 말할 건더기가 없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에요.
석지영 씨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없다면 복이랄 게 없다는 얘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밋밋하지요?
복이라고 말할 때의 그런 짜릿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천국, 지금, 항상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천국이 지구 바깥에 딱 붙어있습니다.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뉴욕으로 갈 때에,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에 '혹시 북아메리카에 있는 미국의 뉴욕 땅이 실지로는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향해 갈 때,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뉴욕보다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혹시 없는 건 아닐까 하고, 처음 가는 곳이라고 해도 프랑크푸르트 공항이라는 데가 없을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이 지금 지구 바깥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구 바깥의 천국으로부터 오는 소리에 대해서 내 마음의 수신 안테나가 터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핸드폰이 강원도 깊은 산골에 들어가면 잘 터지지 않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수신 안테나 신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지국에서 멀기 때문에 전화로 통화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가까이 와있는 천국으로부터 오는 소리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수신 안테나가 터지지 않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재벌의 총수가 되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되든, 석지영 교수 같은 그런 위치에 서든 간에, 만약에 가까이 와있는 천국으로부터의 교신 안테나가 터지지 않으면 복이랄 것이 없다는 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천국이 뉴욕처럼 프랑크푸르트처럼 파리처럼 인도의 갠지스 강처럼 지금 현재 지구의 어떤 부분인 것처럼 지구의 바깥에 와있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이 지구 안에서는 그 이유도 근거도 조건도 성립하지를 않고, 복의 이유와 조건이 전부 지구에 붙어있는, 인간세상의 삶에 붙어있는 천국에 다 있다는 얘깁니다.
무엇이요? 복의 이유와 근거와 조건이 다 거기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갑자기 표적이야기를 하십니다.
싸인, 싸인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말씀을 듣는 게 문제였는데, 행하는 것은 그 나중 문제 아닙니까? 우선 들어야 행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듣는 것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보는 것으로 화제를 바꾸십니다.
표적은 가리키는 겁니다, 간판이에요, 간판.

말씀드렸듯이 '부산 300Km'라는 싸인보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부산이 있고 부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ㅇㅇ초등학교가 500m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가 악해서 보일 표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아버지께서 주님 안에서 행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전부 하나님아버지와 가까이 와있는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 표적이 됩니다, 간판 싸인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아버지가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면 마땅히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기적은 간판일 뿐이고 그 간판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보고 '천국이 가까이 왔구나!' 하고 천국을 봐야 되는데 엉뚱한 걸 봅니다.
무얼 봅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자기 인생의 가능성을 봅니다, 이 지구 안에 벌어지게 될 자기 인생의 미래의 정점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기적의 능력이 내 인생에 동원이 되면 내가 인생에서 이러한 정점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가 있겠구나!'
그러므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역사하셔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애초에 마음에서 천국을 하나님아버지를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대에 천국을 가리킬 수 있는 간판이 존재할 수 없는가?
있다는 겁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도 안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 안 되고, 광풍이 말 한 마디에 잠잠해져도 안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도 안 되는데, 딱 한 가지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다.

주님의 십자가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져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의 뱃속에 들어가셨다가 토해져서 부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이 왜 간판입니까?
왜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표적입니까?
주님이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이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왜 죽어요?
내 마음이 죽은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지구 안에서 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내 인생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갑자기 볼 게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그동안은 내 인생의 가능성을 보고 있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을 하자마자 내 마음이 이 지구 안에서는 볼 게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을 보고 있었더니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해버리십니다.
가까이 와있는 천국 속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시선이 이제는 자연히 지구 안에 인생의 정점과 가능성만을 바라보고 있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서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시선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유일하게 이 악한 세대, 온통 이 지구 안에 마음의 시선이 갇혀있는 악한 세대에게 시선을 뚫어주는 표적이 되고 간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고 있을 때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율법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뒤에 '악한 세대'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켰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거죠.
정화수 떠놓고 고목나무 아래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담 너머로 지나가던 두 사람이 '아유, 그 일이 잘되겠구만!'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백일기도 하던 엄마가 정화수를 떠놓고 고목나무를 보며 기도하고 있던 바람에, 고목나무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로 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잘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하시잖아요?
부자로 잘살고 싶어서 마음으로 부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말씀이 들립니다.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리라'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부자가 되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 말이 들리니까 그 부자 된 자기의 미래의 모습이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 되려면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천국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잡아내는 안테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들은 게 아니라, 이 지구 위에서 자기 인생의 가능성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들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말씀을 듣는 자가 없으니 지키는 자도 없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합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말씀을 전해줘도 하나님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부분에서 '성한 눈과 나쁜 눈'으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성한 눈은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성하다라는 헬라어의 원 뜻이 단순하다, 주름이 잡혀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하다는 게 뭡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성한 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 사울이 다윗을 추적합니다.

이때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자기를 쫓게 하신다고 보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사울의 등 뒤에 있으면서 원수로 보지 않고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피난 가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모욕할 때도 옆에 있는 장군들이 죽이려 할 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성한 눈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을 나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빌라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단순한 눈, 성한 눈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 하나님을 봅니다.
단순한 눈이 무슨 일이 벌어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원수를 만나든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든 언제나 하나님을 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선의 길을 만들어주셨어요, 십자가사건이라는 거예요, 표적이에요, 간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그 길을 그대로 늘 따라갑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보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내 인생의 가능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주어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말씀이 들릴 때 행하게 됩니다.
지구 안에서 내 행동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 지구 안에서는 내가 움직여야 될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구 안에서는 행복도 복도 그 어떤 것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직 가까이 와있는 천국인데, 그 천국으로 내 마음이 시선이 가고 청각이 가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문제, 자식문제, 다 뒤로 남겨두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고 주님 따라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 내 시선이 하늘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켜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진짜 복이 뭔지 한번 느껴보세요.
그런 복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바다 건너에 미국이 있듯이 천국이 지구 경계 바깥에 와있습니다.
유일한 간판 유일한 싸인 되시는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보기를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성한 눈이 되게 해주시며, 이제 세상 나가 살며 부딪히는 모든 일들 중에 그 어떤 일에도 마음의 시선을 두지 않고 그 일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는 성한 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복을 누리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